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정보 사랑방입니다

에디슨 한인 성당 성가대

하느님의 나라를 노래로 구현하는 성가대

성가대의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미사의 전례를 보조하며 성가대원 각각의 온 정성을 노래에 담아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입니다. 성가는 미사의 한 부분이며 하느님과의 대화이므로 모든 전례행사에 참여하여 성가로 봉사하는 단체로서 미사 전례에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성가는 음악으로 하는 기도이므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우분들은 성가대가 성가를 많이 알고 잘 부르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가대는 바쁜 일상을 쫓겨어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싶은 마음과 봉헌하는 마음만 있으면 노래 실력은 문제가 안되는 단체입니다. 성가대원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인 미사에서, 사제를 보좌하며 일반 신자에게는 전례의 능동적인 인도자로 미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봉헌하는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미사를 보다 더 성스럽고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정성과 영혼을 다 바쳐서 찬미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느님께는 영광을 드높이고 모든 참례신자들에게는 주님께 바치는 믿음과 봉헌을 더욱 확고히 다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디슨 한인 성당 성가대

우리 에디슨 한인 성당 성가대는 하느님의 나라를 음악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에디슨 한인 성당의 신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턱은 낮지만, 일단 들어 오면 천상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그러한 주님의 성가대입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연중미사와 부활절, 성탄절을 포함한 대축일미사, 그리고 성모의 밤 행사 혹은 성당의 특별행사에서 성음악으로 전례와 행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한국 천주교 활성화를 위한 순교자 현양 칸타타 음악회를 비롯하여 성당 기금 마련 음악회, 그리고 지난 2017년에는 메타천교구 체키오 주교님 집전의 에디슨 한인 공동체 설립 25주년 기념 대미사와 기념 연주회등 많은 연주들을 성황리에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Covid-19으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였지만 이번 부활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매주 일요일 미사 시작 한시간 반 전부터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며 미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성가를 통하여 전례를 보다 풍요롭게 하고 교우들의 신심을 북돋우며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성가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가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교우분들이 날로 늘어가기를 기대하며 성가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성가 인원

- 지휘자 : 황선주 요세피나
- 반주자 : 이소희 베로니카
- 소프라노 : 고성희 아니시아, 궤신규 루시아, 안현정 소화테레사, 오욱자 테레사, 최미화 레지나, 김명숙 예스터, 이윤경 비르짓다, 임영진 테레사(단장), 이주현 카타리나, 서정희 율리안나, 황지현 스텔라
- 알토 : 성순영 라파엘라, 옥 글라라, 오은주 루사, 이경옥 루시아, 정명숙 테레사
- 테너 : 김동근 요한, 김현걸 토마스 아퀴나스(총무), 신동훈 안토니오, 오용운 토마스 아퀴나스, 우성현 스테파노
- 베이스 : 김광태 루가, 김명성 스테파노, 김진 다니엘, 박상배 스테파노, 옥순재 프란치스코, 정진오 프란치스코, 최승웅 미카엘

성가대 기도문

주님 찬미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흠숭과 감사
어여뵈 보시옵소서.

조출한 우리 몸을 악기삼아
맑고 고운 영혼의 성가를
아름다운 가락으로
주 대전에 바치옵니다.

소리로든 부족하여도
우리정성 굽어보사 즐겨받아 주시옵고
마디마디 화음 이루어 노래할때
독생성자 구속 공로와 부활의 기쁨이
우리와 당신 백성중에 어우르게 하소서

성녀 세실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 성녀 세실리아는 음악과 음악인의 수호성인입니다.)



부활
제 5주일

2022년
5월 15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Ford Madox Brown, 1852-1856

<이번 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사도행전 14,21-27

화답송 시편145(144),8-9.10-11.
12-13ㄱㄴ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 21,1-5ㄴ

복음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복음 요한 10,27-30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5/16/22	사도행전 14,5-18	요한 14,21-26
화요일 05/17/22	사도행전 14,19-28	요한 14,27-31ㄱ
수요일 05/18/22	사도행전 15,1-6	요한 15,1-8
목요일 05/19/22	사도행전 15,7-21	요한 15,9-11
금요일 05/20/22	사도행전 15,22-31	요한 15,12-17
토요일 05/21/22	사도행전 16,1-10	요한 15,18-21
일요일 05/22/22	사도행전 15,1-2.22-29 요한 묵시록 21,10-14.22-23	요한 14,23ㄴ-29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김진철(요한)	- 가족
•김경희(수산나)	- 가족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김명자(헬레나)	- 가족
•박병희	- 김 스텔라
•김영규, 박귀자	- 이윤경(비르짓따)
•박형규	- 송광석(어거스틴)
•이동현(요셉)	- 허기욱(바오로)
•김수명	- 가족
•김미복(루시아)	- 최 헬레나
•이건순(암부르시오)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

생미사	- 봉헌자
•염은미(클라라)	- 가족, 에디슨 구역, 손흥구(바오로)
•오경선(원선시오)	- 허기욱(바오로)
•하건철(안토니오)	- 허기욱(바오로)
•박재영(요아킴)	- 허기욱(바오로)
•박재광(마티아)	- 성가대
•박상배(스테파노)	- 성가대
•김자경(크리스티나)	- 이서형(요안나)
•Tamara Adlevankin	- 송진영(마리스텔라)
•Offir Buitrago	- 송진영(마리스텔라)
•이준우(마르코스), 현진 결혼 축하	- 사랑공동체
•오채영(크리스티나), 우준기(유스티노), 이슬기(레이첼) 졸업 축하	- 박락준(베드로)
•주일학교 기금마련 상품판매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 주일학교 자모회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37명	합계 : \$1,328
2차헌금 (유틸리티)	합계 : \$616

감사 헌금

하건철(\$100) 안현정(\$200)

교무금 납부 안내

변태용(4-6)	김광태(1-5)	이용문(4-5)
서경호(1-4)	조인(1-6)	오경선(5-6)
하건철(5-6)	박락준(6)	정영철(5-6)
최완준(4-6)	안현정(1-12)	합계: \$3,925

공지사항

- # 2차헌금
- 5월 22일: Development of People
- 5월 29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전례분과 대표 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5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쿠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5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통합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8일 (수) 저녁 7시 친교실

반석회 아우회

- 일시 및 장소 : 5월 19일 (목) 오전 11시, Roosevelt Park
- 주소 :151 Parsonage Rd. Edison, NJ 08837
-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반석회 임원분들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점심식사와 음료는 반석회 임원들이 제공하오니 개인 식수만 각자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비치데이

- 일시 : 5월 22일 (주일) 오전 9시 미사 후
- 장소 : 4 Ocean Ave. Long Branch, NJ 07740
-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입니다

사물놀이 팀 개강

- 일시 및 장소: 6월 4일 (토) 오전 10시, 친교실
- 준비물 : 장구와 받침대, 팽과리, 징
- 기존 단원 및 신규 단원 환영
- 문의 : 정길예(프란체스카) 352-682-2525

성당 화단 가꾸기 봉사

- 5월 15일 (주일) 미사 후 성당 화단 꽃나무 심기 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24일 견진 성사를 앞두고 있는 박지나(안젤리나), 고명진(다이애나) 학생을 위해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어머니날을 맞아 꽃과 떡을 준비해주신 야고보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전 혼성 4부 성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당으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전광수(프란체스코)	염은미(클라라)

제 1독서 <사도행전> 14,21ㄴ-27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21,1-5ㄴ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복음 > 13,31-33 ㄴ.34-35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